



진리  
평화  
창조

# 외대학보

발행인 이강희  
주집인 민영호 이장희  
편집장 이영원  
외신문사 (02) 952-7128, 951-4151  
외대 브자 (02) 951-4152, 0335-30-4112  
130-791 서울시 종로구 종로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읍 해안리 3890  
인쇄인 김영수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등록번호 제 1253호

THE OE DAE HAGBO

제 592 호 1992년 11월 10일 (화)  
제 3 등 우편물(가)급인가

## 서울파업, 협상 진전 없어 장기전 조짐

### 캠퍼스 부지안 난항…해결책 모색위해 재단과 직접 만나야

서울캠퍼스 학생측 수업거부 움직임이 69일(금) 대학당국 39년 대표(총장, 부총장, 학생처장)과 학생 층 39년 대표(총학생회장 정부회장, 법대 학생회장) 간의 연석회의에서는 일자리으로 학생족을 제시한 내용에 크게 근본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아직까지 내용상으로 모색과 '대학전위위원회' (이하 '모방위') 구성에 대한 대학당국은 경상한 입장 표정이 없어 전면 수업거부를 계속되고 있다. (합성=아름) 참조)

대학당국이 어느정도 학생측 약간을 받아들여온다면 학생측은 7일(토), 8일(일)에 걸쳐 5일간 학생회 대회를 갖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학생들은 크게 나누어 ▲수업거부를 계속 진행하며 재단원과 부문별로 적극 협의된다. ▲수업거부를 부정하고 대학당국과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학생회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회의 내부의 간이 조작의 방법자리를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1차 협상에서 나온 결과였다.

**대학당국, 학생측 1차 협상안**

서울캠퍼스는 2학기 들어 각 학과를 중심으로 교육환경 부분을 꾸준히 제기해온 반면 용인캠퍼스는 각종 학생회 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 따른 행정부 등이 전면적인 학원화를 응집으로 몰입을 한문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김경철 (사회·부역무)은 "일단

"왕산전위위원회"의 위상과 화를 일으키며 목표를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에 대해 쟁취하기로 하고 있는

부족증의 권리와 함께 학생회를 확장하는 원칙이다. 학생회에서 나온 결과였다.



서울캠퍼스 전역수업이 정기화됨에 따라 대학당국·학생측 대표는 면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활발으로 논의하고 이를 총장에게 제기할 수 있도록 헤아림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함께 용인캠퍼스의 면밀한 협상과 함께 대해서는 뚜렷한 중장기 발전

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캠퍼스와 공동 모색토록 노력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캠퍼스에서 제기되고 있는 '왕산 이전 이전 대학'에 대해서는 우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

러한 입장은 그동안 양측의 의견과 부족증을 중시하는 것으로 서울캠퍼스는 이를 고려하여 용인캠퍼스와의 협의를 본격화 해야 한다는 평가를 냥고 있다.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원지승 (정과·정의과) 교수는 "용인캠퍼스로의 이전반대와 내세우기 이전에 먼저 더욱 친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으며 "단순히 지정으로의 이전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표명이 아닌 대학별별의 의지가 볼 뿐만 아니라 용인캠퍼스로의 통합인을 논의하는 대학당국의 부당성을 지적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1차 협상 중 '서울은 이문, 용인은 이공계'로는 복학발전 내용도 현재는 서울캠퍼스 학생들과 대학당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진 관계로 이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용인캠퍼스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이 있어 실질

### 교육을 세우는 밤침대

▲ 경찰의 원천봉쇄 강경대응 방침을 무릅쓰고 지난 9일(일) 서울대에서는 7천여명의 전·현직교사가 모인 가운데 '교조 학교법회와 민주대개혁을 위한 전국교대대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교육의 정치화제화 선언에 이어 2천3백여 명이 1만여명의 현직교사 '교육선언'이 신문광고판을 기록하였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사총과 교육당국은 대선이 일박에 있는 정국을 무대로 본격적으로 맞서고 있다. 교육계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저녁전 전국교대대회는 바로 교육선언의 한\xaa 일기를 이어받는 하반기 써움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던 것이다.

▲ '우리네 교육현실 잘 큰일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통감하고 있다고 본다. 고생에 시름하는 수험생, 학부모가 그렇게 얘기하고 배포나무로 가기자연을 알고 있는 일선교사들이 그러하다. 또 대관령에서도 교육을 바로 세우자고 하고, 대관령에 부풀어 있는 대통령후보들도 저마다 일시지옥 해소하겠다고 장담한다. 교육현실에 대한 진단이 이다지도 한걸음전에 어째서 교육당국과 일선교사는 대립 구도에 놓여지고 있는가.

진정으로 교육을 바른 경기 위해서는 먼저 무언가를 해해야 하는가를 보아야 한다. 썬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 수 없듯이 결을 끊으면 교육을 받은 세대가 미래를 온전히 지탱할 수 없다. 교육현실에 대수주를 가질 교육대개혁이 우리의 구체적인 치료처방인 것이다. 그와함께 교육체계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전교조 학교법회와 해적교사 원상복직이 비록 지금은 해직된 동료교사의 복직을 바라는 시기 하나로 간접적 차이를 해야만 하는 현실이지만 계기들을 시립할 줄 아는 스승의 힘은 강하게 떠나는 시기이며 된다.

▲ 교육을 바로 세운다. 든금없이 공약한데 속에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참교육의 열망과 비틀어진 교육관행을 거부하는 유키로 반복을 짓고, 전교조 학교법회와 해적교사 원상복직의 치료처방인 것이다. 그와함께 교육체계화를 세우는 것이다.

교사의 양심을 깨이있음을, 미래를 책임질 교육의 대개혁에 그들이 앞장서고 있음을 민여명의 현직교사 교육선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을 위한 밤연간 일순간 뺨개이선생으로 내몰려 생이별해야 했던 선생님, 청교도 전교조 1세대가 갖다줄었다고 교단에 설 풍물이 어떤가? 아니 이제 곧 교생인습이라도 나갈 때에는 그 선생님과 함께 출퇴근 할 수 있겠지.

이충미

### 지면 안내

5면: 미 대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7면: 영화회에 기다리는 제2신사참배

8면: TV뉴스에서 나타나는 대통령후보

### 편들기

9면: 전국노동자대회 취재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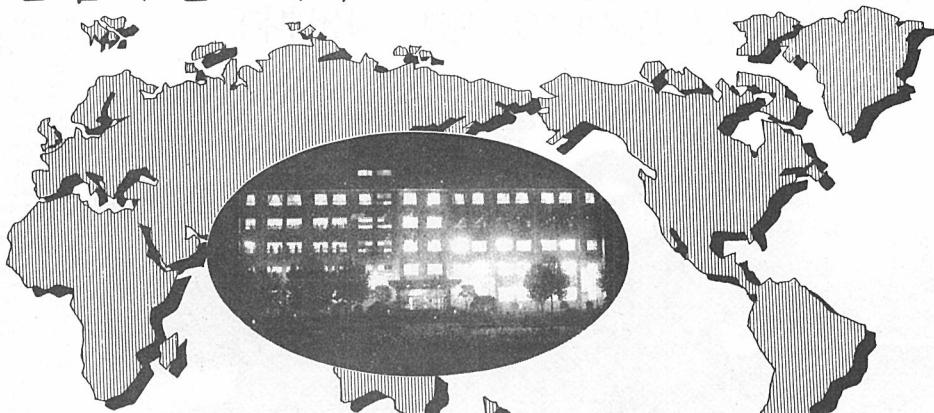
10면: 중장기발전계획 어떻게 이를것인가  
11면: 대선운동본부 발족 및 국민대회

진리 · 평화 · 창조

## 조국을 품에 안고 세계로 향하는 마음

“  
오늘을 만족하지 않기에  
캠퍼스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세계를 바라보고 큰호흡을 하다  
그 가슴은 언제나 조국을 품고 있는 외대인.  
지난 서른 여덟해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시간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시간은 완성을 위해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한시람, 한사람 어깨를 걸고 지구를 끌어가는  
휴머니즘을 가슴 가득 간직한 외대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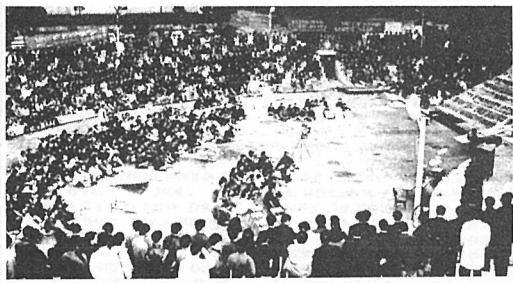
한국 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모아 힘을 보탰 때  
누군가 대학이 어떠한 곳이어야 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외대만한 곳”이라고,  
“생명력있게 살아 움직이는 외대의 모습”이라고.



# 서울, 오늘 협상도 결렬예상

학생들, 보다 명확한 합의안 요구  
학교측, 가합의안 입장 고수방침



이제 (9일) 오후 2시 30분 서 전개한 것임을 시사했다.

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는 학생 1천명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는 본교

‘비상학생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경의대회는 지난 6일 (금)

노조되었던 집회에 참석

한 학생들과 중앙운영위원회,

학생 학생대표 3인시의원과 학생

(정과·경과) 군은 비슷한 학

문위기와 기한의원에 대한 오

해를 해결하고 이후 학생 본교

총장을 비롯해 대학당국 대

발전운동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충성대회장 박

상현(서양·노어) 군은 ‘협상

인을 먼저주고 학생들은 선제

하나는 신의 지난 6일 (금) 집회

진행방식에 대해 사과를 표명

했다.

또한 박상남군은 “우여단

분이 파업을 계속하기를 원한

다면 각 학생회는 그 최선투

설 3”이라고 밝혀 계속 파업을

각자는 자작동으로의 캠퍼스 이전과 ‘와대발전 위원회 구성’을 대학당국에 강력히 요구했으나 대학당국은 이를 거부하고 오늘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충성대회에서는 방

## 교육부, 사대 학과통폐합 발표

### 사범대생, 교원적격 대책 수립요구

교육부의 사법대학 유사관련 학과, 평생학습과와 관련해 본교 사학대생들이 이를 반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화) 발표한 94학년도 사법대학과 학

생증원지침과 떠벌리 현제대학

교육부가 해당해 사설 41학과의 경과·불교과와 독일어

과·중·한·영·체육과·동아리

교과·중·한·영·체육과·동아리

















